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6월 4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주 경찰청에서 현충일(MEMORIAL DAY) 주말 동안 음주 운전자 225명
체포함 발표**

**경찰관들은 현충일(Memorial Day) 주말 음주 및 운전을 막기 위한 캠페인 기간에
13,000장 이상의 티켓 발부*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경찰청에서 현충일(Memorial Day) 주말에 진행된 STOP-DWI 교통 단속 기간에 13,693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운전한 위반자 22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심신 미약 상태 및 난폭 운전자들을 타깃으로 한 이 계획은 5월 24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5월 27일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주정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.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. 주정부는 음주 및 난폭 운전자들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적극적인 집행을 하여 모든 이용자를 위해 도로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."

Keith M. Corlett 주 경찰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올해의 캠페인 결과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주 경찰은 이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경찰관들은 이런 난폭한 자들을 도로 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."

Mark J. F. Schroeder 자동차부(Department of Motor Vehicles) 커미셔너 대행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(Governor's Traffic Safety Committee) 회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현충일(Memorial Day) 주말은 여름 시즌의 시작을 축하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즐겨야 합니다. 그러나 너무 자주 음주 및 무책임 운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명손실이 좋은 시간을 망칩니다. 음주 및 난폭 운전을 단속하여 모두의 고속도로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완강한 활동을 하신 뉴욕주 경찰청(New York State Police)과 기타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"

주지사의 교통안전 위원회(Governor's Traffic Safety Committee), 뉴욕주 경찰청(New York State Police)에서 부분 지원한 54시간의 STOP-DWI 캠페인 기간에 경찰관 수를 증가하고 검문소를 설치하여 심신 미약 상태의 운전자들을 막고 식별해 체포했습니다.

주 경찰은 DWI로 225명을 체포했으며, 190명의 부상과 4명의 사망을 초래한 134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했습니다. 교통단속의 일환으로, 주 경찰은 주 전역에 걸쳐 과속 운전 및 난폭 운전도 단속했습니다. 다음은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의 표본입니다.

과속 3,855
운전 부주의 392
안전띠 미착용 3,327
차선양보법(Move Over Law) 위반 267

이번 단속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은 주 경찰청(State Police) 차량과 위장 교통 단속(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, CITE) 차량을 사용했습니다. 경찰관은 위장 교통 단속(CITE) 차량으로 일반 차량들과 섞여 위반 운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이 됩니다.

2018년 현충일(Memorial Day) 주말에는 경찰관들이 234명의 음주 운전자들을 체포했으며 13,318장의 운전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.

2019년 현충일(Memorial Day) 경찰 단속 결과는 [여기](#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